

GO with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 주제성구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어긋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과 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Follower’로 부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봅시다.

두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방식을 배우고 익혀봅시다. 훈련이 몸에 익

은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Leader’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Follower’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Follower’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Follower’와 ‘Leader’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징

1) 양육

<Follower>는 예수님의 제자 됨을 목적으로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우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나눔

<Follower>에서 제자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경청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별 메시지를 듣고, 이해와 감정, 의지로 응답하며 살도록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과 제자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 응답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해 ‘I(image)카드’, ‘E(emotion)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I 카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E 카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넘어 다양한 나눔을 위해 'Q(question)카드'를 준비했습니다.

'Q 카드'는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드입니다.

제자 됨으로의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3) 단순

<Follower>는 구성의 단순화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필요한 소그룹 양육과 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각 과를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라는 구성을 통해 기도-나눔-배움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기도, 나눔, 배움을 통해 집중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법

<Follower>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매주 한과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도자는 미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본 교재의 각과 진행 순서는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입니다.

- IN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 OPENING의 가벼운 삶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 MEETING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 FOLLOWING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가집니다.
- OU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과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로 들어가,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함께 기도로 나오는 과정을 익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인 틀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과와 관련된 기도문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에 소개된 '두 문장'을 통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 계

1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2~3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 4~5권은 교회와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1권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며, 이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갑니다.

3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2~3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힙니다.

4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알아갑니다.

5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4~5권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5권

Go with Jesus

- | | | |
|----|------------------------------|------|
| 01 | 세상 속으로 마 28:18-20 | • 09 |
| 02 | 지금 여기, 빛으로, 소금으로 마 5:13-16 | • 13 |
| 03 | 광고판으로 살기로 하자 행 1:8 | • 17 |
| 04 |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벧전 4:12-13 | • 21 |
| 05 |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요 15:4-5 | • 25 |
| 06 | 한 영혼, 결코 가볍지 않아 눅 15:1-10 | • 29 |
| 07 | 안녕, 평화 엡 2:14, 마 5:9 | • 33 |
| 08 | 사랑은 지나쳐도 괜찮아 마 5:38-48 | • 37 |
| 09 | 그날, 바라고 바라보며 기다려 계 22:20 | • 41 |

세 가지 카드 만나기



옆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카드(PDF)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emotion)을 다양한 카드 속에서
찾아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나의 느낌을 말 대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question)을 넘어 더욱 다양한
물음을 묻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 속 친구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주변에는 아직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들은 이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속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터전으로부터 벗어나 교회에만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믿음과 삶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을 뿐, 세상을 떠나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일 뿐,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그 후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끄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께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교회입니다.



- ☑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나요?



(1)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다를까요?

(2)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3)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빛으로,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3-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3-14)



하나님,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
세요.



다음 활동을 합니다.

- ① 선생님이 말하는 제시어를 듣습니다.
- ② 3초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시도합니다.
- ③ 모든 사람이 같은 자세를 취하면 성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세상을 밝혀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밤하늘을 밝혀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컵은 물을 채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릇은 음식을 담아놓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 꺼진 캄캄한 방에 있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요 1:5). 불이 꺼진 방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 하나님과 어긋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세상 속에 반사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목적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상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적은 양의 소금일지라도 제 역할을 한다면 음식의 맛을 살리고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상한 음식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맛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패를 막는 방어막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상하게 하는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 경고하며, 예수님을 따라 선을 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변질을 막아내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처럼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입니다.

☑ 교회는 세상의 상함을 막는 □□입니다.



(1) 언제, 어떠한 일들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달리 어둡고 부패하고 변질되었다고 느끼나요?

- 가정 :

- 학교 :

- 교회 :

(3)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정 :

- 학교 :

- 교회 :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해주세요.

광고판으로 살기로 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
세요.



나의 인생 맛집을 소개해 봅시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생 아이템 2개를 소개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드라마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쓸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친한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곳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은 후 맛에 대한 평가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문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람과 장소의 지경을 넓혀가며 예수님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거하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경은 점점 넓어졌으며, 훗날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로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넘

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광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리는 광고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 ☑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교회가 그동안 써 내려간 이야기, 앞으로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1) 내게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
니게 되었나요?

(2) 예수님을 전해 본 경험이 있나요?

- YES :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NO : 예수님을 전한다고 상상해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3)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적
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해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하나님,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승리를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게
임을 통해 이 이야기를 재연해 봅시다.

- ① 세 명이 한 팀이 됩니다.
- ② 한 사람은 모세(성경책 들고 두 손 들기), 두 사람은 아론과 훌(한 손씩 붙
잡고 들어주기)를 맡습니다.
- ③ 시작하여 가장 오래 손을 들고 버티는 팀이 승리입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
해 한쪽 다리 들기, 성경책 들기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참고 견뎌야 할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선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된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방해로 견뎌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가 극심하여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견디며 나아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다양한 저항과 방해들이 일어났습니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고난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반응해야만 했습니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다양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마주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며 받게 된 고난이라면, 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간혹 형통이 아닌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고난 속에 함께하시면서, 이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력을 견딜 수 있는 내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방해나 조롱, 무시를 앞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끝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을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과 함께하십니다.



- ✓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 ✓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1)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고난이 있나요?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나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2)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미지로 표현해 봅시다.



(3)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각자 적어 보고, 옆 친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4-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 자신만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 있나요?

ex) 팔꿈치에 혀 닿기, 손 꺾기, 성대모사, 춤 등

한 사람이 장기를 보여주고 다른 이들은 도전해 봅시다.

교회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운동회 종목 중에 2인3각 달리기があります。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다리 한 쪽씩을 묶어 3개의 다리가 되어 달리는 경기입니다。2명이 한 명처럼 달려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때 한 명이 지나치게 빨리 달리려 하거나 한 명이 지나치게 느리게 가려 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을 맞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2인3각 경기처럼 예수님과 발맞춰 세상 속에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머리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합니다。 머리의 인도와 몸의 따름, 순종이 함께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만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긴밀한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없다면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였

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을 위한 빛이 되라고 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발맞춰 세상 속에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써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2인3각으로 세상을 섬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홀로도 아니고, 교회 홀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걷습니다.



- ☑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 ☑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나요?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3)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ex) 앞서감, 뒤처짐, 동행, 무관심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게 해주세요.

한 영혼, 결코 가볍지 않아

누가복음 15장 1-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10)



INTRO

하나님,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OPENING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뉴스에서 들리는 사고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죽어서는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려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지는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쁨에 넘쳐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기쁨에 사로잡혀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보세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내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안 타깝게도 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립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 걱정했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 집에서 먼 거리까지 나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그를 반겼습니다.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을 헤아릴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어느 사람은 있어도 되고, 어느 사람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가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 되길 바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찾아다니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 ✓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었나요?



- (1)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을 보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왜 그런가요?



- (2)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 (3)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해줄 말이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안녕,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최근 내가 접했던 뉴스 중에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
인가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갈등과 대립, 폭력과 괴로움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국가, 성별,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경제, 영토, 이념, 자원 등으로 인해 폭력과 다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어떠한가요?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공동체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쉼 없이 흘러나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폭언을 퍼붓고, 누군가를 따돌리는 폭력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폭력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몸과 정신을 파괴하고, 한 사람 혹은 공동체의 삶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평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잠시 덮어 놓는 순간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거쳐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거만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남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구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국가, 성별, 세대, 계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화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보여주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화, 교회가 누리고 전해야 할 평화입니다.



- ☑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를 누리게 하십니다.
- ☑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을까요?



(1) 평화가 깨어진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2) 가정이나 학교,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3) 가정이나 학교, 교회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 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지나쳐도 괜찮아

마태복음 5장 38절-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는 상대방의 기대보다 넘치는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나요?



지나치게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오버한다”라고 말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오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지나치게 웃는다든지, 지나치게 돈을 쓴다든지,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한다든지, 즉 무엇이든 오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늘 그런 사람들을 진정시켜주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버해도 괜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도 된다고 인정하신 오버 행동들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을 돌려주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상의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져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2km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4km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정당해 보이는 것 이상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오버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의 오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오버 행동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려는 사람에겐 영광이 있습니다. 삶

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당해 보이는 행동을 넘어, 넘치는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이 죄를 범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용서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삶에 오셔서 함께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정당함을 넘어 넘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왜, 어떻게 그들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 이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길, 그것은 지경을 넓혀가는 사랑에 있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오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 ✓ 지나치게 오버해도 괜찮은 일은 무엇인가요?
- ✓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 2 3 4 5 6 7 8 9 10

(2)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 ‘오버해서 사랑하기 리스트 3가지’를 작성하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봅시다.

1

2

3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날, 바라고 바라보며 기다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
세요.



나의 소망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내가 바라는 소망
을 3가지 적어보세요.

(1)

(2)

(3)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미리 안다면, 오늘을 미래에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부정적인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있다면, 기쁨 속에 준비하며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상상은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1분 후, 10분 후의 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만큼의 미래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미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건, 다시 오시는 날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도록, 말과 삶으로 그날을 가리키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거절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날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외칩니다. 교회는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갈등과 폭력으로 깨지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마주하는 죄와 고난, 죽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날을 가르치며,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그날을 감사와 기쁨 속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말과 삶으로 그날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날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 예수님이 알려주신 미래의 일은 무엇인가요?
- ☑️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1)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2)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나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3)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세요.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발행일 2025. 11.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김두범
기획 조성환 이상숙 신혜경 이상지
집필 정승환 오선주 이반석 이태진
감수 박찬웅 양성진
그림 김유림
교정교열 조윤정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73번길 135-52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통

〈비매품〉